

북한 정치체제와 마음의 습속* 주체사상과 신소(伸訴) 제도의 작동을 중심으로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이 연구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조응하는 북한주민의 '마음의 습속'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도자와 인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신소 제도, 더 나아가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한 주체사상이 만들어내는 북한주민의 마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신소(伸訴)제도란 억울한 사연을 권력자에게 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북한체제의 제도를 의미하며, 주체사상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바탕으로 한 이념과 종교적 의례를 특징으로 한다. 주체사상이라는 통치이데올로기는 정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생활양식이자 윤리로서 주민들의 일상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것의 실천 기제 중 하나가 바로 신소제도이다. 한편 최근 김정은의 3대 세습과 시장화 등의 사회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북한주민의 마음에 균열 조짐이 포착되기도 하지만 국가 형성 이래 구축된 마음의 습속은 쉽사리 대체될 수 없어 북한 사회 내 급격한 변혁이나 체계의 붕괴를 막아서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만큼 주민들의 몸에 새겨진 도덕률로서의 마음의 습속은 지금의 북한사회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이후 변화의 향방과 폭을 결정짓는 사회적 힘의 일부분이다.

주제어: 신소, 주체사상, 마음의 습속, 북한주민의 마음, 시장화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7S1A3A2065782). 중요한 지적을 해 준 세 분의 평가에게 감사드린다.

1. 들어가며

모두에게 북한은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이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식량난과 수많은 아사자, 국가 성립부터 계속되어 온 미국의 적대정책, 핵개발과 국제제재, 장마당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북한체제를 규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북한의 특수성이나 국제관계의 틀로 북한을 이해하려 했지만, 고립되어 타자화된 북한에 대한 총체적 해석으로 확장되지는 못한 듯하다.¹⁾ 특히 핵 위기를 기점으로 북한을 향한 안보중심적인 논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이들 또한 국가와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는 역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한반도의 변화가 본격화된 지금, 다른 어느 국가처럼 북한 또한 정치체제 및 제도라는 축과 인민이라는 또 다른 축이 씨와 날로 엮어진 개체라는 사실에서부터 다시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안보중심적 논의에 대한 반성에서 등장한 몇몇 연구에서는 국가이데올로기 밖 북한주민의 행위주체성을 강조하거나 이들이 의례를 통해 북한체제에 동조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²⁾ 특히 권헌익과 정병호는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제를 현대적 극장국가로 정의하면서, 수

1) Hazel Smith,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Vol.76, No.3(2000), pp.593~617.

2) 박순성·홍민,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서울: 한울, 2013); 박순성·홍민,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서울: 한울, 2010); 김성경, "북한 주민의 일상과 방법으로서의 마음: 생활총화와 검열의 상황에서의 공모하는 마음," 『경제와 사회』, 109호(2016).

령이라는 카리스마적 권력이 <아리랑>과 같은 혁명예술, 대형건축물과 기념물 등 수많은 연극적 장치를 통해 정당화되고 계승된다는 주장을 펼친다.³⁾ 저자들은 북한에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가 국가적 수준에서 기획된 거대한 연극으로 전승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에 참여하는 인민들의 동의 과정에 대한 정치한 분석보다는 이를 단순히 결과로 상정하고 있다.⁴⁾ 즉 의례라는 장치 그 자체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통해 인민들의 몸과 마음에 배태되어 규범과 가치로 작동하는 관습과 습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제는 의례와 제도, 일상의 실천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도덕적 규범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현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자 북한의 지배적인 삶의 유형으로 물질화되고 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한 마지막 퍼즐은 권력의 작동과 긴밀하게 연관된 북한주민의 몸과 마음을 규명하는 것이며, 이는 북한주민들의 공동체성의 근간이자 집합적 삶의 양식을 확인하는 작업의 일부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조응하여 구성된 북한주민의 문화적 습속, 즉 이들의 마음에 내재된 문화적 양식을 문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마음은 이성과 이성 외 것의 합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몸과 이성의 이분법 너머 몸의 도식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을 지칭한다. 북한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정한 마음은 그만큼 무정형이면서도, 이들의 무의식과 몸을 넘나들며 작동하고 있다.⁵⁾

3)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서울: 창비, 2009).

4) 구갑우, “권력의 미학만으로 ‘카리스마’의 지속을 설명할 수 있을까,” 『교수신문』, 2013년 3월 4일.

또한 북한주민의 마음은 일종의 아비투스로서 외부 체제와의 긴밀한 관계로 구축된 구조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면서 사회변화를 추동한다.

본 연구에서 습속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이유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사상이 일종의 가치체계와 도덕률로 확장되어 주민들의 마음에 각인되는 경향성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토크빌과 벨라가 주장한 것처럼 특정한 정치체제와 마음은 깊은 상호관계성을 지니며, 특정한 정치체제의 유지 혹은 변혁 이면에는 마음의 작동이 자리하고 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힘으로 습속을 주목하며, 벨라 또한 미국인이 공유하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가치체계를 미국인들만의 마음의 습속이며 미국식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⁶⁾ 그렇다면 북한주민 또한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정치신념체계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경험하면서, 이들만의 마음의 습속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분석되어야 할 것은 과연 그들의 마음의 습속이 어떠한 성격과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맥락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체계로 실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체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도자의 영도 없이는 진

5) 이는 부르디외가 행위자의 행위와 무/의식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화된 구조(structured structure)와 동시에 미래 행위와, 의식, 가능성을 구조화하는 구조(structuring structure)로서의 아비투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Pierre Bourdieu,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6)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Clérel de Tocqueville), 『미국의 민주주의 1』, 임효선·박지동 옮김(서울: 한길사, 2013); Robert Bellah et al.,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주체사상과 이를 일상에서 실행하는 제도는 북한주민이 독특한 개인주의와 공동체성을 구성하게 하였다. 특히 북한주민들과 지도자와의 다소 특수한 관계를 실천하는 제도인 신소제도를 사례연구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마음의 습속이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신소’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함’이라는 뜻으로 한자어로는 펼칠 신(伸)에 호소할 소(訴)를 쓴다. 북한에서 쓰이는 ‘신소’의 개념은 ‘탄원’, ‘민원’, ‘제보’, ‘건의’ 등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는 북한 사회의 계층과 감시체계, 그리고 지도자, 관료, 그리고 인민의 관계까지도 응축하고 있는 사회적 실천의 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공유하는 마음의 습속에서 ‘개인’, ‘평등’, ‘권리’, ‘공동체’ 등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어떤 맥락과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 즉 주체사상과 조용하여 구성된 마음의 습속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접합(articulation)하여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그만큼 이들의 마음의 습속은 고정된 것이 아닌 항상 변형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마음의 역사성과 공간성을 문제시하는 ‘마음의 지질학’이라는 방법론적 시도는 이러한 습속의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유용하다.⁷⁾ 다시 말해 북한주민이 공유하고 있는 마음은 역사의 퇴적물이라는 바탕 위에 구성된 것이며 현재의 경험으로 물질화되며 동시에 미래 지향이라는 의의까지도 포함한다. 그만큼 마음의 습속은 향후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는 방향타이자, 사회 변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7) 이우영·구갑우,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마음의 지질학’ 시론,” 『현대북한연구』, 19권 1호(2016).

2. 북한사회의 ‘마음의 습속’

북한 정치체제와 주민들의 습속을 분석하려는 본 연구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작의 문제의식을 상당부분 공유한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감탄하며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가 보기에 미국은 “평등한 사회적 상태”를 구축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습속이 가능해졌다.⁸⁾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전제군주 앞에서 평등 수준에 머물러 것에 반해 그 당시 미국은 “사람들 사이의 조건의 일반적 평등”이 확산되어 있었고,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법률)와 사람들의 습속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⁹⁾

토크빌은 민주주의 작동을 위해서는 법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습속(mores)이 큰 기여를 한다고 강조한다.¹⁰⁾ 미국 사람들의 관습과 태도가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그 근원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습속은 “생활태도, 다시 말하면 ‘마음의 습관’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과 견해, 그리고 심성을 구성하는 사상의 총체”로서 특정 국민의 “윤리적·지적 전체 조건을 망라”하는 것이다.¹¹⁾ 토크빌의 ‘습속’이라는 개

8)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Clérel de Tocqueville), 『미국의 민주주의 2』, 임효선·박지동 옮김(서울: 한길사, 2013), 731~735쪽.

9)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1』, 59쪽.

10)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1권의 17장에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정치의 원인을 3가지로 설명한다. “①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합중국인들이 놓여진 독특하면서도 우연한 상황, ② 법률, ③ 국민들의 생활태도와 관습”이 바로 그것이다(위의 책, 369쪽).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종교와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 생활태도, 교육, 습관 등이 미국의 민주주의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논증한다. 자세한 논의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1』, 17장을 참고하라.

11)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1』, 381쪽.

넘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지적, 심적, 감정적, 정서적, 신체적 습관에 덧붙여 도덕적, 윤리적 지향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습속을 가리키는 불어 mores의 어원이 이후 도덕(moral)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특정사회의 구체적인 도덕 관습”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¹²⁾

토크빌의 통찰력은 이후 미국사회를 이해하려는 일련의 연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로버트 벨라는 미국인들의 심성에 존재하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책무를 ‘마음의 습속(Habits of the Heart)’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벨라 역시 민주주의라는 체계와 미국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무정형의 힘을 주목하였다. 그는 ‘마음의 습속’을 특정 사회의 의식, 문화와 같은 정신적 층위와 함께 일상생활의 경험과 실천, 관성적 습관까지 포괄하여 개념화한다. 게다가 미국인들이 공유하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마음의 습속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 실상, 장기 생존력, 그리고 변화 가능성을 나타낸다.¹³⁾

한편 벨라는 200여 명이 넘는 미국의 중산층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과도한 개인주의가 마음의 율법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미국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진단한다.¹⁴⁾ 비슷하게 파커 또한 미국 민주주의 부활을 위해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균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12) 이황직, “토크빌의 제도와 습속의 방법론 연구: 『미국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25호(2009), 160쪽.

13) Robert Bellah, et al.,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유승무·신종화·박수호, “북한사회의 합심주의 마음문화,” 『아세아연구』, 58권 1호(2015).

14) Lene Arnett Jensen, “Habits of the Heart Revisited: Autonomy, Community, and Divinity in Adults’ Moral Language,” *Qualitative Sociology*, Vol.18, No.1(1995).

주장한다. 미국의 ‘평등한 사회 상태’의 중심적 역할을 해 온 종교, 지역사회, 학교 등 사람들이 교류하는 다양한 공동체로 인해 미국인들은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 가치를 마음 속 깊이 새겨 넣을 수 있었다.¹⁵⁾ 하지만 공동체가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미국 민주주의 이면에서 작동하여 다양성의 사회를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습속’이 부서졌다는 것이다.¹⁶⁾

15) 토크빌이 긍정적으로 보았던 미국인들의 개인주의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비록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만큼 부나 권력을 지니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의 욕구를 보살피기에 충분한 부와 이해력을 지니게 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으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된 존재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운명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상상한다.” 하지만 미국인은 또 한편으로 종교나 시민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결사체를 만들어낸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상업과 공업 회사뿐만 아니라, 수천 가지 다른 종류의 결사체가 있다. 종교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도덕적인 것도 있고, 진지한 것이 있는가 하면 하찮은 것도 있고, 포괄적이고 거대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한적이고 협소한 것도 있다. 그 결성의 목적은 다양하다. 즐기기 위해서, 세미나를 갖기 위해서, 여인숙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도서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구의 정반대편에 선교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등이다. 그들은 결사체의 방식으로 병원, 감옥, 학교 등을 설립한다. 어떤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또는 훌륭한 본보기를 내세우면서 어떤 감정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파커 J. 파머(Parker J. Palmer),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김찬호 옮김(서울: 글항아리, 2012), 90-91쪽.

16) 예컨대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룬 퍼트넘의 『나홀로 볼링, Bowling Alone』이나 혹셀드의 『자기 땅의 이방인들, Strangers in Their Own Land: Anger and Mourning』는 공동체의 붕괴로 인해 미국인들의 지금까지 줄타기해 온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균형이라는 마음의 습속이 무너졌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연구라고 할만하다. 로버트 퍼트넘(Robert David Putnam), 『나홀로 볼링: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정승현 옮김(서울: 페이퍼로드, 2016); 앨리 러셀 혹셀드(Arlie Russell Hochschild), 『자기 땅의 이방인들: 미국 우파는 무엇에 분노하고 어째서 혐오하는가』, 유강은 옮김(서울: 이매진, 2017).

흥미롭게도 위의 연구들은 특정 국가, 그곳의 정치체제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도덕, 가치, 습관을 주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미 일찍이 뒤르케임이 도덕과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개인주의가 전통적 종교의 역할을 대치하여 근대 사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과 일맥상통한다.¹⁷⁾ 그만큼 사회를 작동하는 힘, 현재의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무정형의 에너지가 바로 사람들의 도덕적 습관, 가치체계, 신념이라는 것이다. 습속은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존재하면서 개인을 압도하며 동시에 개인 안에 내재한다. 습속은 특정한 삶의 유형을 일반화하는 도덕률로서 작동하기에, “구성원의 의식과 행위를 구속하고 추동하는 힘의 자기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¹⁸⁾ 이 연구가 마음의 습속이라는 개념으로 북한을 살펴보려하는 것은 그곳의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정한 관습, 습관, 도덕, 가치 등이 바로 지금의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제가 북한의 현재를 결정짓는 주요 동인이라는 기존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구조와 순환적 관계를 지닌 마음의 습속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사회적 힘으로 지금의 북한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마음의 습속’은 특정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무정형의 문화적 힘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모호하면서도 상당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¹⁹⁾ 즉 종교와 같은 전통적인 사상, 습관, 전망과 더불어 정치체

17)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New York: Basic Books, 1995); Emile, Durkheim,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New York: Free Press, 1951).

18) 송재룡, “한국사회의 자살과 뒤르케임의 자살론: 가족주의 습속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이론학회 엮음, 『뒤르케임을 다시 생각한다』(서울: 동아시아, 2008), 180쪽.

19) 송재룡, “한국 사회의 문화구조 특성에 대한 연구: 전근대적 문화 습속을 중심으로

계와 사회제도를 통한 실천의 패턴까지도 포함한다. 게다가 행위와 무/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비가시적인 도식으로 존재하여 다음세대로 전수되기도 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마음의 습속은 특정 사회를 움직이는 문화 전반을 가리키는 가치, 규범, 실천, 생활양식으로 지속적이며 관행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행동과 의식의 지침으로서의 마음의 습속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막아서기도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존재를 규정짓는 힘으로서 일상과 문화를 통해서 면면히 유지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사회를 분석한 상당수의 연구는 한국인이 공유하는 마음의 습속으로 유교적 이념과 가치를 주목한다. 유교적 마음의 습속이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의식, 가치, 행위의 이면에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한국의 근대는 지체되었거나 독특한 형태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한다.²⁰⁾ 가치와 규범으로서 전승되는 유교적 습속이야말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힘의 실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주민의 마음의 습속은 어떤 특징을 지닐까? 우선 한반도 분단 이전부터 내려오는 특정한 습속이 여전히 북한주민의 마음에 흔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식민과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물질 토대를 잃어버린 북한은 과거의 유제를 극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를 수립했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명분 아래 유교적 전통과 가치는 상당부분 청산되었고, 사실상 새로운 체제와 문화 추구를 지향하기까지 했다. 토크빌이 미국의 국가

로,” 『담론 201』, 12(2009), 14~15쪽.

20)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서울: 생각의 나무, 2007); 김경동,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서울: 박영사, 1992).

형성기에 주목했던 ‘평등한 사회적 상태’, 즉 ‘사람들 사이의 일반적 조건의 평등’이 북한에서는 전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의도치 않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1946년에 선포된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연이어 제정된 <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등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계급적 차이를 타파하고, 신분과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을 무력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하지만 국가 형성기의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적 상태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후복구 이후 권력투쟁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와의 단절을 꾀으면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주의적 습속이 급속하게 이식되었지만,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공고화되는 1960년대 후반부터는 주체사상이라는 또 다른 가치 체계, 규범 등과 조응하는 습속이 구성되어 주민들의 삶과 의식을 규정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체사상적 습속에도 여전히 과거의 흔적은 존재한다. 마음의 지질학의 통찰을 다시금 상기해봤을 때 주체사상이 절대적 가치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상이 담지하고 있는 내용이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습속과 상당부분 교집합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1980년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수령론 등이 등장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가부장적 가족국가가 공고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 직접 나서 청산하려 했지만 마음 깊숙이 교묘히 전승되어 온 유교적 습속에 수령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의미화 하는 것에 성공했음을 뜻한다.

토크빌이 청교도주의로부터 미국인의 마음의 기원을 찾았던 것처럼 일상과 의식의 강제력이 높은 종교 혹은 유사 종교의 작동은 습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²¹⁾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북한사회에서 절대적 가치체계로 작동해 온 주체사상이 북한주민의 마음에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이 사실상 상 종교적 교리와 의례로 실천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북한주민의 마음의 습속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특히 주체사상에서 강조하는 ‘주체적 인간’은 수령의 인도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인데 그만큼 주체사상의 자장 안에서 북한주민의 주체성은 지도자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된다. 인민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은 역설적으로 수령 앞의 종속성과 수동성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조건은 가치체계와 도덕의 이름으로 북한주민의 습속의 일부가 되어 특정한 삶의 양식을 지배적인 것으로 확산시킨다. 지도자에게 복종한다면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인민들은 그들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물론 성분제도나 당원 자격 여부를 두고 서열이 공존하기도 하지만 그 상대적 위계는 수령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주체사상이라는 유사 종교 혹은 윤리지침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상징체계로서 북한주민의 무의식과 행동과 습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주체사상이라는 영향 아래 북한주민은 특정한 도덕적 기준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감각하게 되는 것이다.

21) 이황직, “토크빌의 제도와 습속의 방법론 연구: 『미국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25호(2009), 160쪽.

3. 주체사상이 구성한 마음의 습속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공고화되는 1967년을 기점으로 ‘김일성주의화’와 ‘혁명적 수령관’ 등의 뼈대를 갖춘 주체사상이 전면에 등장한다.²²⁾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공포되고, 1974년 김정일이 직접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 것을 강조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 등이 선포되면서 북한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사 종교 집단으로 변모하게 된다.²³⁾

김정일이 직접 강조한 김일성주의화의 면면은 북한에서의 수령의 독특한 위치와 주체사상의 종교적 성격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입니다.²⁴⁾

수령의 영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며, 모두가 수령에게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안착되는 것이다. 특히 1974년 2월에 제정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²⁵⁾

22)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서울: 박영사, 2006).

23) 북한과 종교와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로는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서울, 통일연구원, 2000)를 참고.

24)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년 2월 19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은 김일성을 법과 인민 위에 절대적이면서도 영원한 존재로 옹립한 것의 다름 아니다.

특히 10대 원칙은 사회주의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북한주민에게는 행위와 의식의 원칙이고, 이는 생활총화와 같은 조직생활을 통해서 주민들의 일상을 해석하는 틀로 작동하게 된다. 예컨대 상당수의 북한주민은 생활총화에서 10대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일상이나 동료의 의식과 행동 등을 비판하게 되는데, 10대 원칙이 지닌 포괄성으로 인해 대상자를 문제시하는 것은 항상 가능한 일이 된다. 북한 출신자에 따르면 10대 원칙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 자신 혹은 주변의 동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했다는 것이다.²⁶⁾ 이런 점에서 10대 원칙은 포괄성을 의도적으로 담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마치 기독교의 십계명과

25) 1.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5.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작품을 지녀야 한다. 8.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26) 신소와 주체사상의 작동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출신자 5명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덧붙여 생활총화에 관련해서도 2016~17년에 걸쳐 10여 명의 북한출신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같이 삶의 기준이 되지만, 해석이 다양할 수 있어 신앙인을 신 앞의 죄인이라는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과 비슷한 작동원리이다. 즉 수령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정당화하고 당과 지도자의 노선과 정책을 규율화하기 위한 10대 원칙은 수행 가능한 규범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결코 다다를 수 없는 포괄적 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인민을 수령과는 구별되는 부족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비슷하게 1980년대에 들어서 등장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을 북한사회라는 유기체의 뇌수라 정의하고, 노동당은 심장, 인민대중은 몸이 되어 하나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인민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바로 수령에게서 받은 것이 되고, 이 때문에 수령, 노동당, 인민은 하나의 ‘가정’으로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없이 육체적 생명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당과 수령의 영도가 없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²⁷⁾이 바로 이 사상의 핵심적 의미다. 생물학적인 생명이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진정한 삶, 즉 사회정치적 생명은 바로 수령과 당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수령은 가부장제의 절대적 힘을 지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며 북한 사회는 혁명을 향해 생을 함께하는 하나의 가족이 된다. 주체사상의 유교적 요소가 포착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이는 과거 국가건설기에 국가가 나서 교정하려 했지만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교적 습속을 다시금 되살려 국가이데올로기의 일부분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한편 주체사상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주체적 인간형이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정의한다. 주체적

27)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근로자』, 8호(1973), 3쪽.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이다.²⁸⁾ 하지만 주체사상은 인간 스스로 사회적 존재로 변화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오직 올바른 영도력에 의해서만이 ‘개조’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해서만 사회역사적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다 … . 인민대중의 개별적 성원들은 자기들의 협소한 일시적인 이익과 요구는 인식할 수 있으나 인민대중 전체의 근본요구, 공동의 요구를 스스로 깊이 인식할 수 없으며 당면한 이익과 전망적인 이익을 올바르게 결합시켜나갈 수도 없다. … 인민대중은 자기의 근본 요구와 이익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옳은 지도를 받아야 한다.²⁹⁾

북한의 인민은 수령이라는 자장 안에서만이 진정한 인간, 역사와 혁명의 주체가 된다. 주체적 인간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방향이나 내용은 수령의 영도체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듯 수령은 신과 같거나 아니면 목숨을 준 아버지와 같

28)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주체사상 총서 1)(서울: 백산서당, 1989), 155~193쪽. 수령을 혁명의 주체로 정의된 것은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김정일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여야 하지만, 각 사회와 시대 별로 그 경험은 전혀 다르게 발달해왔음을 강조한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 지위와 역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오랫동안 자기의 사회계급적 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 역량을 단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9)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주체사상 총서 1)(서울, 백산서당: 1989), 180쪽.

다. 수령이라는 신 앞에 인민은 한없이 부족하며, 그들은 덕과 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수령을 항상 섬기고 받들어야 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이라는 체계아래 일사분란하게 조직되어 있는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다양한 의례, 의식,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마치 종교와 같은 체계로 공고화되기도 한다. 우선 영도예술로 일컬어지는 매체, 대중운동의 조직 등은 일사분란하게 짜인 의례의 경험을 제공한다. 예컨대 김일성 시기의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 운동, 김정일이 이끈 3대혁명소조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그리고 영웅모범따라배우기운동 등의 경험을 통해 인민은 영도체계의 작동 방식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 스스로 특정한 실천과 의식 형태를 구축하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는 종교가 되어 수령과 그것에 관련된 것은 성스러운 것으로 의미화되기도 한다. 신적 존재로서의 김일성은 인민을 지도하고 구원하는 존재가 되고, 그만큼 그의 말과 형상은 ‘성스러운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지도자의 사진을 담은 노동신문에 함부로 낙서를 하거나 찢지 못하는 것이나, 마치 기독교의 예배를 연상시키는 각 단위의 학습과 모임의 면면이 바로 주체사상이 어떻게 종교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예컨대 생활총화와 학습 모임 등이 이루어지는 김일성주의연구실은 행정기관, 산업기관, 군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약 10만여 개에 이르며, 이곳에서 북한의 인민들은 상시적인 모임과 학습 등의 의례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 종교적 의례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속성을 띤 것처럼, 김일성주의연구실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작,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등이 경전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인민들은 이러한 글들을 암송하거나 이를 기준점으로 생활총화, 자기비판 등의 학습을 수행하기도 한다.³⁰⁾

수령의 절대적 위치와 이에 복종하는 인민의 관계는 현지도라는 체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기존 연구가 이미 밝혔듯이 북한은 현지도를 통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강화하고, 애민정치라는 상징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¹⁾ 지도자가 인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절대적 존재로서의 지도자의 위치와 그의 자애로운 사랑을 받는 인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정유석과 곽은경이 지적한 것처럼 지도자는 현지도를 통해 인민의 삶 속에 가시화되며, “추상적 국가와 구체적 개인”은 현지도라는 장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³²⁾

주체사상, 특히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유일사상 10대원칙 등은 북한 인민들의 삶의 지침이자 규율로 작동한다. 일상에서의 교육과 조직생활, 영도예술, 대중운동, 거기에 현지도 등은 수령의 절대적 권위를 현실에서 경험하게 하는 실천적 제도이다. 제도와 의례를 통해 인민은 수령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면서도 수령의 지침 아래서 “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미약한 이들로 생산된다. 수령의 영도력 아래에서만 창의적, 의식적, 그리

30) 김성경, “북한 주민의 일상과 방법으로서의 마음: 생활총화와 검열의 상황에서의 공모하는 마음”;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16).

31) 이에 대한 연구로는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06), 김일성 시기의 현지도를 분석한 유호열, “김일성 ‘현지도’ 연구: 1980-19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3권 1호(1994), 현지도의 정치적 목적을 밝힌 이교덕, 『김정일 현지도의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02), 김정은 시대의 현지도를 분석한 것으로는 정유석·곽은경, “김정은 현지도에 나타난 북한의 상징정치,” 『현대북한연구』, 18권 3호(2015) 등이 있다.

32) 정유석·곽은경, “김정은 현지도에 나타난 북한의 상징정치,” 167쪽.

고 주체적일 수 있는 북한의 인민이 실천하는 주체성과 개인주의는 여타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통치 체계 내 개인의 주체성과 개인주의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습속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이나 도덕적 우월감을 통한 ‘인정’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4. 신소제도의 작동과 마음의 습속

인민-수령과의 직접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실행된다. 그중에서도 수령과의 직접적 소통의 기능을 강조한 신소제도는 반복적인 실천과 제도화 과정을 거쳐 북한주민들의 마음에 지도자의 절대적 위치를 각인시키고 당 간부나 조직생활에서의 동료와의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실천의 예이다. 신소와 같은 제도는 그만큼 북한주민의 습속의 일부분이며, 실천됨으로써 다시금 마음에 배태되는 지속적이며 순환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조선말대사전에서 정의한 ‘신소’는 “인민대중의 목소리”이다. 김정일은 “인민들은 국가기관이나 개별적일군들에 의하여 자기의 리익이 침해 당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법기관에 신소할수 있”다고 정의한바 있다.³³⁾ 즉 각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당 및 국가기관, 기업소, 근로단체 등에 제기할 권리를 가리켜 ‘신소’라고 한다. 신소가 제도화된 이래로 도, 시, 군 당위원회와 조선노동당의

33)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소, 2002)

조직지도부 산하에 신소과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중앙당 전문부서에도 신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는 신소실로 명명된다. 각 단위 별로 신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한 것은 “인민을 위한 광폭정치”의 실행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당 간부를 견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³⁴⁾

‘신소’라는 표현이 북한 문헌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 이전 소련신탁통치 기간이다. 『김일성저작집』에 실린 1947년 3월 15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보고에서 김일성은 비판과 자기비판에 게으른 당 일꾼들을 질타하면서 ‘신소’를 무겁게 다룰 것을 강조한 바 있다.³⁵⁾ 김일성은 신소를 무시하는 당 일꾼의 행동을 “통탄할 일이며 반당적이고 반인민적인 범죄행동”이라고 비판한다. 사회주의적 체제를 도모할 당시 아래로부터 인민들의 불만을 당 관리들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했다.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에게 지지받는 노동당과 체제 구축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런 맥락에서 당이 나서 인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다. 김일성은 1947년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회의에서도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이어 간다.³⁶⁾ 그는 당회의에서 자유롭게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34) 박영자,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198-200쪽.

35) 김일성, “일부 당단체들의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오류와 결함을 퇴치할데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한 보고, 1947년 3월 15일,” 『김일성저작집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소, 1979).

36) 김일성, “당단체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한 결론, 1947년 2월 13일,” 『김일성저작집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소, 1979).

당내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원들 각자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시기 김일성이 ‘신소’를 강조한 맥락은 권리를 지닌 평등한 존재로 탄생한 인민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 구축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인민이 주축이 된 당을 건설하여, 혁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인민의 뜻을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신소 제도는 점차 변질되어 갔고, 특히 유일지배체제가 본격화되는 1960년대 말부터는 그 성격이나 작동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감지되기도 한다. 즉 신소제도가 당 간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거나, 수령-인민 간의 직접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둘 사이의 상징적이지만 끈끈한 유대감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1967년 이후 유일지배체제가 완성되면서 김일성은 ‘신소’의 중요성을 언급하게 된다. 김일성은 노동당이 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닌 당원들을 조직하는 “정치기관이며 교양기관”이라고 규정하고, 당 관리들은 이러한 당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료주의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김일성은 인민은 이제 복종하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창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당과 혁명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라고 설명한다. 김일성이 언급한 ‘인민’의 성격과 신소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지금 동무들이 관료주의를 부리고 당세도를 쓰는데 습관되다보니 그저 떠돌아다니면서 우쭐거리기만 하고 무슨 일이나 되는대로 처리해 버리고 있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오늘 우리 인민들은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인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민들입니다. 일제때 우리 인민들은 천대받고 억눌리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할데가 없었습니다. 혹시 어

데 가서 하고싶은 말을 한마디 하면 그 것을 해결받기는커녕 오히려 잡혀
가고 매를 맞고 더 큰 화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인민들은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서 모두다
일정한 조직에 속하여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의견
을 제기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인민은
모두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정치적교양을 받은 각성된
인민입니다.³⁷⁾

김일성은 당 간부들이 권력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인민을 “어머니의
심장”으로 보살피는 존재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민들의 문제나 고통
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해결하는 것이 당 간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다. 이는 유일지도체제를 완성해갔던 김일
성이 노동당 간부들을 견제하고 자신은 절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의 일부였다. 이뿐만 아니라 인민은 당 간부의
‘보살핌’을 받지만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천명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 김일성은 조직지도부 산하에 ‘신소과’
에서 신소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주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각 기관의 신소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질책한다. 그러
면서 김일성은 상당수의 인민들이 자신의 속한 기관의 신소부가 아닌
당중앙위원회, 더 나아가서는 총비서나 수상한테까지 신소를 올린다
고 지적하고, 자신에게 직접 신소가 온 사례도 언급하기도 한다.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김일성은 당 관리들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통

37)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데 대하여. 도, 시, 군및공장당책
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7년 3월 17~24일,” 『김일성저작집 21』(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1983).

제하면서도,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관철되지 못한 일상의 사례를 신소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김일성은 신소제도를 통해 국가의 힘이 인민의 삶의 영역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것, 즉 인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방기된 것을 파악하여 교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소는 김일성이 주장해 온 인민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혁명의 방향성을 관철하기 위한 통치기구로 작동한 듯하다. 또한 신소는 다소 상충되는 이해관계 혹은 인민들 사이의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를 각 단위의 책임자로 한정시켜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런 측면에서 신소제도는 인민 사이의 문제를 각 단위의 책임자 혹은 더 나아가서는 중앙당위원회와 지도자가 직접 나서 해결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신소는 인민과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독특한 제도이며, 북한 사회에서 포착되는 지도자와 인민 그리고 인민들 사이의 다소 구별적인 관계를 반영한다.

한편 김정일이 본격적으로 정치 일선에 등장한 이래로 김일성과 비슷하게 신소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김정일은 신소를 통해 지목받은 당 간부들이 개인적인 감정을 갖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신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복수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³⁸⁾ 그만큼 각 단위의 책임자가 신소에 관련된 책임을 지도록 하더라도,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분란 또한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신소 관련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상위 기관으로 그 문제가 이관되거나 드물지만 지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경우도 있었다. 북

38)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김정일저작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한에서는 서열이나 조직이 촘촘하게 작동하지만, 만약 신소 제소자가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그것을 지도자에게 고함으로써 끝까지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소의 대상이 당 간부이거나 단위 책임자인 경우 당중앙위원회, 심지어는 지도자에게 직접 올라오기도 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직접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중앙당 1호 신소”로 중앙당 신소실이 그 업무를 맡는다.³⁹⁾ 이는 지도자에게 직접 각자의 억울한 사연을 고할 수 있는 채널인데, 주로 사안이 엄중한 일이 중앙당 신소실을 통해 접수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1호 신소편지는 무조건 자신들이 직접 확인하였는데, 이는 인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간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박영자의 연구에서 인용된 북한출신자의 증언에 따르면 1호 신소에 올라오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기에 이런 구조를 아는 인민들은 직접 1호 신소를 접수하곤 한다.⁴⁰⁾ 지역의 당 중앙위원회 등의 관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도자에게 신소를 넣음으로써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이 신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1호 신소의 사례를 통해 지도자는 인민의 사정을 항상 우선시 하고 있음을 선전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 간부에게 그들의 권력이 인민 통해 상시적으로 감시되고 있으며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인식은 언제든지 지도자에게 보고될 수 있음을 각인시킬 수 있었다.

39) 최진이, “중앙당 1호 신소는 ‘북한의 현대판 신문고’,” 『NK조선』, 2001년 3월 29일.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7>; 박영자,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40) 박영자,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199~200쪽.

5. 북한주민의 습속의 변화는 가능한가?

북한체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습속은 마치 변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송재룡의 표현으로는 습속의 “존재 구속성”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하여 특정 사회를 규정하며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위를 추동하기에 더더욱 그러하다.⁴¹⁾ 습속이라는 개념이 한 사회의 안정된 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 보수성으로 인해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 또한 가능해보인다. 하지만 ‘마음의 습속’을 이론적으로 문제시한 토크빌이나 벨라 등은 구조와 제도 등과 관계를 맺으며 구축된 습속은 항상 새로운 행위나 의식, 감정 등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⁴²⁾ 무엇보다 최근 미국 민주주의의 몰락을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 미국인들의 마음의 변화로 촉발된 부정적 사회현상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습속의 변화 가능성은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그만큼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행동과 의식의 등장 속에서 습속의 독립성이 유지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급속한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일상의 재편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마음의 습속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

우선 주체사상이 주조한 마음의 습속에는 틈새가 발견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주체사상이 신성시해 온 수령이 더 이상 현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수령의 절대적 위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

41) 송재룡, “한국사회의 자살과 뒤르케임의 자살론: 가족주의 습속과 관련하여,” 179~181쪽.

42) 토크빌의 경우 미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프랑스의 전근대적 습속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습속의 긍정적 변화를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었으며,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영향력 또한 예전과는 사
 못 다르다. 물론 최근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수령’으로 호명
 하면서 기존의 주체사상의 근간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예컨대 2016년에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는 노동당을 ‘김일성-김정일
 주의당’으로 규정하였으며, 김정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최고강
 령으로 틀어쥐고 혁명의 취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밝”
 히는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호명한 바 있다.⁴³⁾ 덧붙여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김정을의 집권에 따른 변화된 정세
 를 반영하기 위해서 2013년에 무려 39년 만에 전면 개정되기도 했다.
 개정된 10대원칙에서 김일성주의는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김일
 성-김정일은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자 “주체의 태양”으로 정의되
 었다.⁴⁴⁾ 김정에게 권력을 넘긴 김정일이 ‘수령’의 위치에 새롭게 등
 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두혈통”이라는 표현을 성문화는 등 10대원
 칙의 개정은 김정을의 절대적 권력을 정당화한다. 덧붙여 김정을은
 의도적으로 할아버지 김일성의 청년시기의 모습을 흉내 냄으로써, 상
 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통치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과 3대 세습을 거치면서 북한 사회의 근간은 흔
 들릴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추앙해 온 절대적 존재인 김일성의 사
 망까지 겹치게 되면서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과 같은 이
 데올로기 체계는 북한 주민의 일상과 분리되었다. 흥미롭게도 남한으
 로 온 북한 출신자들 대부분은 김일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과 김정일

43)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 2016년 5월 9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6년 5월 10일자.

44) 오경섭, “10대원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치적 의미,” 『정세와 정책』, 9월호
 (2013).

에 대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김일성 시기까지만 해도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작동되었지만 고난의 행군과 함께 권력을 이양받아 ‘선군사상’을 더 중시했던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만큼의 신적 존재로 등극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 김일성의 사망과 식량난, 그리고 군을 중심으로 한 규율통치 등이 겹치면서 북한주민의 마음의 습속에는 더 이상 수령이라는 존재가 갖는 신성함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곳곳으로 확장된 시장은 북한 사회 변혁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제 주민들은 당이나 조직생활을 통해서 일상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전혀 다른 공간과 사회적 관계에 매달려 생존을 유지하게 되었다. 수령의 영도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했던 북한주민은 갑작스레 개인의 생존과 이해관계 관철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울만 남은 ‘수령’이라는 존재보다는 당장 내 주변에서 물건을 공급해 주고, 단속을 무마해 주며, 물건을 사주는 다수의 인민들이 더 중요해지게 된다. 과거 수령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자신과 동료의 삶을 평가하는 장이었던 생활총화에서 이제는 서로간의 체면을 지켜주는 ‘예의’가 더 중요한 행동규칙이 되었다. 아래는 호상비판에 대한 북한 출신자들의 불편했던 경험을 진술한 것이다.

그래도 기분 나쁘지. 원래는 혁명적 원칙에 따라 그러면 안되는 건데. 나한테 뭐라고 비판하면 속으로는 나중에 나도 복수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지. 사람인데. 그래서 난 사실 정말 그쪽이 불편한 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비판하지 않는다고. 사람 마음 다 똑같으니까.⁴⁵⁾

이처럼 수령이나 국가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일상에서 마주치는 동료와 이웃을 중요시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려는 다양한 문화적 규칙이 새롭게 실천되고 있다. 주체사상이 강조한 수령-인민의 수직적 관계와 수령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덕률이라는 믿음에 조금씩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의 실천으로 작동해 온 신소제도에 대한 부정적 결과 등이 북한의 문학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특히 사람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소제도의 오작동을 언급한 것이 최근 북한 문학에 등장하기도 했다. 예컨대 2017년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 중 김명호의 <무역과장>이라는 작품에서는 수령과 당의 지도의 중요성 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도리나 예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신소를 인간관계를 파탄 내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신소를 청한 주인공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죄를 지은” 자로 설명하는 것이나, 신소로 파괴된 인간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결단을 한 경순 과장을 “큰 사람”과 “강자”로 언급하기도 한다. 인간에 대한 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신소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행동에 큰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이 소설이 신소 그 자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등장인물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신소를 문제시한다는 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등장인물 간의 ‘용서’로 했다는 점은 변화한 신소제도의 작동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신소의 문제로 인해 인간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나 복수를 하는 것 등은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경계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 소설은 신소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작용을

45) 탈북자 K 씨 인터뷰. 2017년 9월. K 씨는 북한에서 지식인으로 활동한 50대 후반의 남성이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료와의 협력과 이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배포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전면화하고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북한사회에서 신소제도는 점차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인터뷰에서 확인된 바로는 신소과가 각 조직마다 존재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작동하면서 점차 신소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분위기라고 한다. 과거 동일한 원칙에 따라 상위 기관이나 지도자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함께 공유할 도덕적 원칙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 관리, 동료, 주변 이웃과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주민이 공유해 온 마음의 습속이 완전히 대체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듯하다. 탈북 지식인인 최진이는 신소제도는 북한사회의 도덕이 붕괴되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그녀는 신소를 “양심인과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지탱할 수 있는 그리 가늘지 않은 기둥”이라고 언급하면서, “정치적 자유의 떡창문(작은창)”이라고까지 평가한다. 고난의 행군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작동했던 신소제도가 1998년부터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역시 고난의 행군과 수령의 죽음을 겪으면서 사회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유의 작은 기회마저 사장되었다는 것이 그녀의 평가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북한 출신인 그녀가 지도자에게 직접 고하는 것이 ‘양심’이요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사회의 소통 부재와 강압적인 규율구조를 비판하기 위해서 신소제도를 과도하게 민주적 장치로 설명한 것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 출신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만 있다면 수령이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함을 증명해 주기도 한다. 즉 인민의 절체절명의 문제를 지도자는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는 독특한 마음의 습속이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구축된 습속은 문화와 마음의 지층에 남아 일상의 행동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라는 습속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권력자에 순응하는 태도는 유지되고 있다. 북한 주민은 개인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면, 상급자에게 스스럼없이 보고하거나 해결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마음의 습속이 규정한 행동이라는 관점으로 해석 가능하다. 권력자와의 직접적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는 북한주민이 공유하는 경향성으로 구축되어 일상생활에서 곧잘 발현된다.

우리는 인생은 한방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밀쳐야 본전이라는 거지요. 높은 사람들 눈에만 들면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 그래서 한국에 온 탈북자들은 문제만 생기면 바로 가장 높은 사람한테 뛰어올라가서 난리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는 거지요.⁴⁶⁾

반대로 남한 주민들은 주변과의 다툼을 지양하고자 하는 감정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이해다툼을 개인의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직장과 같은 조직 내에서 상급자에게 개인 간의 갈등을 보고하거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고자질’로 폄하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동료 간의 수평적 관계보다 상급자와의 수직적

46) 탈북자 A 씨와 인터뷰. 2018년 7월. A 씨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한국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로 낙인찍거나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는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문화적으로 터부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남한 주민에게 북한 출신자들의 위와 같은 집합적 경향성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치부되거나 때로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북한주민이 지금까지 체화해 온 사상과 이것이 물질화된 제도를 감안했을 때 이들의 이러한 실천 양식이나 의식체계는 마음의 습속이라는 무정형의 힘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할 만하다. 이는 변화된 사회구조나 환경에 따라 상당부분 재구성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화적 규범체계와 몸의 습관으로 남아 계속 그 흔적을 남길 가능성도 높다.

지도자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는 마음의 습속은 남한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짙다.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출신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남한의 시민들인데, 그 이유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정치 세력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에는 훨씬 익숙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를 연구한 현인애와 북한출신자의 투표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김영달에 연구는 공통적으로 북한출신자들이 친여당, 친정부적인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음을 밝혔다.⁴⁷⁾ 이러한 정치적 성향과 투표행태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 차이보다는 권력자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태도를 고려해서 해석할 때 더 설명력이 높아진다. 즉, 권력자는 반대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며 복종하는 것이

47) 현인애,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14); 김영달, 『북한이탈주민 투표행태연구: 지역 변수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6).

라고 믿는 그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며 거리에 나서는 남한 주민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그만큼 정치 지도자를 향한 이들의 태도와 의식은 여전히 과거의 자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습속의 형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수령의 자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주체적 인간의 탄생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의 선을 고려하려는 태도가 확산될 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령 아래에서의 평등이 아닌 인간 개개인의 가치로서의 평등한 관계가 공고화되는 것도 중요한 이행 지표이다. 그만큼 갑작스러운 계기로 완성되기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토크빌은 구습이 청산되고 새로운 습속이 등장하는 그 과정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토크빌은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서 민주적 사회로 이행되는 시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공공성에 대한 감각을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고 우려한다.⁴⁸⁾ 역사적으로 볼 때 평등이 확산될 때 오히려 더 심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어 왔고,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결국 민주적 습속과는 반대 방향으로 퇴행된 사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북한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회변화는 주체사상적 습속의 수정을 이끌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습속을 추동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48)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2』, 3장을 참고하라.

6. 나가며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북한사회를 구성해왔다. 주체사상이 종교성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주민들의 특정한 마음의 습속을 재구성하였으며, 수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충성은 이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지도자와의 수직적 관계를 통해서 구축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일상적으로 실천되는 조직생활과 규율구조는 이들에게 지도자의 뜻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게 하였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주변의 동료나 이웃과는 다소 평등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구축하게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성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이 바로 신소라는 제도인데, 이는 지도자와 인민 사이의 직접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신화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즉 인민은 자신들의 곤경을 지도자가 해결해줄 수 있다는 의식과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당 간부에 대한 불신과 일상 수준에서의 주변 동료에 거리 두기 등의 실천을 가능하게 했다.

북한주민의 이러한 마음의 습속은 수령의 죽음, 고난의 행군, 시장화의 확산이라는 커다란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상당부분 수정되고 있다. 일상 속의 협력이나 공모가 생존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북한주민은 이제 지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이나 이념을 추종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시장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된 일상의 관계들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이제 주민들은 지도자가 아닌 주변의 동료, 당 간부,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주민이 구축이 이 독특한 마음의 습성은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 작동하고 있다. 수평적이며 개인주의적 관계를 지향하기 보다는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인 순응과 충성이 여전히 그들의 몸

과 마음에 배태되어 있으며, 이는 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짓는 힘 중 하나이다. 예컨대 남한으로 이주해 온 북한 출신자들이 조직 내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힘겨워하는 것이나 수직적 관계가 짙은 종교에 쉽게 빠져드는 양상, 거기에 정치 지도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려는 태도 등이야말로 이들이 북한에서부터 구축한 마음의 습속이 남한으로 이주해 온 이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남한으로 이주해 온 북한 출신자가 이러하다면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더욱 기존의 마음의 습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하다. 게다가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수령보다는 약화되었지만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인 김정일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지도자의 절대적 위치는 그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신적 지도자에 익숙한 이들의 습속이 북한의 3대 세습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자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 사회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북한 주민의 이러한 성향은 쉽사리 대체되거나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를 간과한 독재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방편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절대적 지도자 아래에서의 미약한 인민이 아닌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주체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 세계의 많은 사례에서 피를 흘리며 성취한 민주화가 대중 스스로에 의해서 다시금 전복되었던 사례를 되새겨볼 필요도 있다.

북한주민이 공유하는 마음의 습속을 분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지닌 방대함, 포괄성 그리고 모호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주민과의 접촉면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남한 출신 연구자에게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도가 설혹 단편적일지라도 북한주민들의 문화, 습속에 접근하려 하는 것은 앞으로 만나게 될 북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면 좋겠다. 북한주민과의 접촉, 교류,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남한 사회는 이들이 오랫동안 구축해 온 문화와 이들만의 독특한 사회적 마음이 무엇인지 끈질기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더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북한주민이 공유하는 마음의 습속에서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지, 만약 있다면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은 무엇인지 살피는 작업도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북한주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의 공동체를 모색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부분일 것이다.

■ 접수: 7월 16일 / 수정: 8월 3일 / 채택: 8월 7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소, 2002).

김일성, “일부 당단체들의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오류와 결함을 퇴치할데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우언회 제6차회의에서 한 보고, 1947년 3월 15일,” 『김일성저작집』, 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소, 1979).

_____, “당단체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한 결론, 1947년 2월 13일,” 『김일성저작집』, 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소, 1979).

_____,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데 대하여. 도, 시, 군및공장당책 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7년 3월 17~24일,” 『김일성저작집』, 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김정일저작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_____,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 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년 2월 19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주체사상 총서 1)(서울, 백산서당: 1989).

2) 신문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근로자』, 8호(1973).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 2016년 5월 9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6년 5월 10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서울, 창비, 2013).

김경동,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서울: 박영사, 1992)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16).

_____, 『북한사회의 종교상: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서울, 통일연구원, 2000).

박순성·홍민,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서울: 한울, 2010).

박영자,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17).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서울: 박영사, 2006).

이교덕,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서울: 통일연구원, 2002).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서울: 생각의 나무, 2007).

토크빌, 알렉시스 드(Alexis de Tocqueville), 『미국의 민주주의 1』, 임효선·박지동 옮김(서울: 한길사, 2013).

_____, 『미국의 민주주의 2』, 임효선·박지동 옮김(서울: 한길사, 2013)

통일정책연구소, 『주체사상과 인간중심철학』(서울: 예문서원, 2003).

파머, 파커 J.(Parker J. Palmer),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김찬호 옮김(서울: 글항아리, 2012).

퍼트넘, 로버트 D.(Robert David Putnam), 『나홀로 볼링: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정승현 옮김(서울:페이퍼로드, 2016).

훅셴드, 앨리 러셀(Arlie Russell Hochschild), 『자기 땅의 이방인들: 미국 우파는 무엇에 분노하고 어째서 혐오하는가』, 유강은 옮김(서울: 이매진, 2017).

홍민·박순성,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서울: 한울, 2013).

2) 논문

- 김성경, “북한 주민의 일상과 방법으로서의 마음: 생활총화와 검열의 상황에서의 공모하는 마음,” 『경제와 사회』, 109호(2016).
- 김영달, “북한이탈주민 투표행태연구: 지역변수를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송재룡, “한국 사회의 문화구조 특성에 대한 연구: 전근대적 문화 습속을 중심으로,” 『담론 201』, 12(2009).
- 오경섭, “10대원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치적 의미,” 『정세와 정책』, 9월 호(2013).
- 유승무·신종화·박수호 “북한사회의 합심주의의 마음문화,” 『아세아연구』, 58권 1호(2015).
- 유호열, “김일성 ‘현지도’ 연구: 1980-19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3권 1호(1994).
- 이우영·구갑우,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마음의 지질학’ 시론,” 『현대북한연구』, 19권 1호(2016).
- 이황직, “토크빌의 제도와 습속의 방법론 연구: 『미국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25호(2009).
- 정유석·곽은경, “김정은 현지도에 나타난 북한의 상징정치,” 『현대북한연구』, 18권 3호(2015).
-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06).
- 현인애,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3) 신문

- 구갑우, “권력의 미학만으로 ‘카리스마’의 지속을 설명할 수 있을까,” 『교수신문』, 2013년 3월 4일.
- 최진이, “‘중앙당 1호 신소’는 ‘북한의 현대판 신문고,’” 『NK조선』, 2001년 3월 29일.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7>.

2. 국외 자료

1) 단행본

Bellah, Robert N and et al.,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Bourdieu, Pierre,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Durkheim, Emile,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New York: Basic Books, 1995).

Durkheim, Emile,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New York: Free Press, 1951)

2) 논문

Jensen, Arnett, “Habits of the Heart Revisited: Autonomy, Community, and Divinity in Adults’ Moral Language,” *Qualitative Sociology*, Vol.18, No.1(1995).

Smith, Hazel,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 Vol.76, No.3(2000), pp.593~617.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and the Habits of Heart: The functions of *Juche* Ideology and *Sinso*

Kim, Sung Kyung(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those ‘habits of the hearts’ among North Korean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In particular, North Koreans’ hearts and minds are facilitated with *Sinso*, a peculiar political institution for the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the Suryong and the people. *Juche* ideology, the political ideology of North Korea, also contributes to construct the current sets of North Koreans’ habits of the heart. With the high impacts of *Juche* ideology, North Koreans construct their distinctive habits of the heart so as to regulate everyday life. For example, North Koreans highly value the leader over others in all aspects although they may not have the chance to meet him at all in their lifetime. Although the leader remains in a symbolic world, North Koreans feel a connection to him by practicing various institutions and rituals as analyzed in the case of

Sinso. However, recent changes in society such as marketization have great impacts on North Koreans' hearts and minds, but their habits of hearts as a norm are not radically transformed as the political system and its operation remain the same. Rather North Koreans' habits of the heart function to sustain the status quo of North Korean society.

Keywords: *Sinso*, *Juche* ideology, habits of the heart, North Koreans' mind and heart, marketization